

[종합·국제]

“北,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준비”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국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의 국무서력 대변인 산케이 신문은 29일 ‘인공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는 별도로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원산이 로켓 발사가 계획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권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특히 경계를 강화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케이는 이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일부터 이란 대표단 15명이 북한에서 로켓 발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 간부들로, 이 회사 간부들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의 발사사도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 등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신문은 원산이 로켓 발사가 계획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권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특히 경계를 강화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한 자위대원이 지켜보고 있다. 일 방위상은 지난 27일 북한의 로켓이 일본을 위협할 경우 이를 요격하라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도쿄 일원에 배치됐다.

산케이신문 “원산 부근서 움직임 포착” 보도

日 이지스함 동해 출동 미사일방어체제 가동

림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와 조카이가 지난 28일 오후 일본에 낙하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